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6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에 도입되는 방식들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중심으로-

손 정 수*

요 약

이 논문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도입한 소설들을 통해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과 특징,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우선 최근 한국 소설에서 그 유형은 (1) 사건 그 자체가 재현의 형식을 통해 직접 도입되는 경우와 (2)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허구의 사건을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소설 속에 삽입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재현의 방식이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알레고리의 방식은 사건을 수용하는 주체의 의식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재현의 방식에서는 작가의 기존의 이념적 태도가 재확인되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알레고리적 방식에서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나 소설적 방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한편 이전의 다른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의 형상화의 경우에는 알레고리의 활용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 참여의 성격이 강한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향의 소설들에서 그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주제어: 역사, 상징, 알레고리, 실재, 세월호 사건

*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진행 중인 사건을 서사에 도입하는 방식들
3. 나가며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현실의 인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던 한국 소설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현실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과정에는 '용산'이나 '세월호' 등으로 상징되는 현실적 사건의 흐름이 그 계기로서 놓여 있다. 그렇지만 현실로 회귀하는 소설적 경향이 이전의 문학적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사이에는 사회 시스템의 전 차원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 가로놓여 있고, 다른 미디어 매체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설의 성격과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소설적 방식의 변화에도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소설만의 방식을 탐색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현'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1] 시각적 형상화나 그 속도에서 소설은 영상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 비해 그다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더 그러할 것인데, 그 과정과 성격을 '용산' 사건을

1) '광주' 사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2010년대 소설에서 '서사'보다 '묘사'의 경향이 우세하다는 사실과 그 원인의 분석에 대해서는 손정수, 「역사에 접근하는 최근 장편의 형식과 그 정치적 무의식」(『세계의 문학』, 2015년 여름호) 참조. 물론 이 전반적인 경향의 변화가 '재현' 혹은 '서사'가 소설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사화한 이야기들에서 이미 확인해볼 수 있었다.[2]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파장의 범위나 영향력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서사화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문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일련의 소설들에서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진행 중인 사건을 서사에 도입하는 방식

역사적 사건이 서사에 도입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문학이 현실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와 확장의 양상에 대해 언급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사건의 경우 '304 낭독회'나, '생일시' 같은 새로운 방식의 행사도 눈에 띄는 현상이고 팟캐스트 등 다른 미디어와 결합하는 양상도 두드러진다.[3] 이전과는 다르게 상업적 시스템에 대한 부정성의 태도보다 협력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점도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라 할 만한다. 이런 특징들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텍스트 차원의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텍스트를 통한 서사화 방식에 한정해서 유형별로 그 특징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손정수, 「'용산'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들의 스펙트럼」(『자음과모음』, 2010년 가을호) 참조.

3) 양경언의 「눈먼 자들의 귀 열기-세월호 이후 작가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기록」(『창작과비평』, 2015년 봄호)과 이경수의 「현실 접속의 실재와 증언문학의 가능성」(『서정시학』, 2016년 봄호) 등에서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1) 사건의 직접적 제시

(1) 상징을 통한 사실적 재현

소설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그 사건을 이야기 속에 재현의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찬의 〈새들의 길〉(『문학사상』, 2014년 8월호)이나 임철우의 〈연대기, 괴물〉(『실천문학』, 2015년 봄호) 같은 소설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광주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진지한 방법적 탐색을 추구해왔고 근래까지도 용산 등 사회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소설적 반응을 보였던 정찬의 경우나 작가가 성장한 지역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의 악순환을 그리는 한편 광주 사건으로 인한 원죄의식과 그 해소과정을 천착해온 임철우의 경우에 세월호 사건은 그와 같은 역사적 문제들의 현존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소설에서 이 사건의 도입은 이전의 소설적 작업의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가령 〈연대기, 괴물〉에서 그 자신이 한국전쟁의 이념적 대립의 희생물이라 할 수 있는 송달규(진태)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며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은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똑같은 풍경들이었다"[4]고 느낀다. 그러니까 현실 혹은 시대를 반영하는 문제적 사건의 자리에 세월호 사건이 놓임으로써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광주로부터 이어진 '연대기'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아들 종우를 세월호 사건으로 잃은 '그녀'의 상황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들의 길〉에서도 운동화라는 상징적인 매개물을 통해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의문 속의 실종된 '그녀'의 오빠의 이야기가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 역사적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4) 임철우, 〈연대기, 괴물〉, 『실천문학』, 2015년 봄호, 267면.

방현석의 〈세월〉(『문학동네』, 2015년 가을호)에서도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은 작가가 이전부터 지속해온 관심사와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있다. 실화에 바탕을 두고 쓰인 이 소설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딸(린)과 그 가족이 세월호 사건으로 실종된 상황을 맞고 있는 베트남인 아버지(쩌우)를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의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쩌우 일가의 순박한 심성과 자본에 의해 훼손된 현실의 세태가 대비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세월호 사건 자체보다도 베트남이라는 반성적 거울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이 더 부각된 느낌도 있다.

한편 정찬, 임철우, 방현석 등과 비교하면 그의 소설에서 사회적 관심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윤대녕의 작품 속에도 세월호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 〈닥터 K의 경우〉(『문학과사회』, 2015년 여름호) 역시 작가의 이전 소설들에서처럼 남녀의 우연한 만남을 소설의 구조로 취하고 있는데, 전작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물들의 삶에 내력에 새겨진 사회적 재난의 구체적인 상흔이다. 신경정신과 의사 K는 사고로 딸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로 떠나왔고, 그가 만나기 위해 찾아온 H는 삼풍백화점 사고로 남편을 잃고 캐나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변화가 발생한 데에는 이국의 공간에서 보내는 상황이 작가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든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작가가 소설 창작에 입문할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수용된 문학적 성격이 잠재되었다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 현실화되는 계기를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80년대와 90년대 문학 사이에는 단절보다 연속의 측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들 세대의 소설에서만큼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이후 세대의 소

설에서도 세월호 사건은 모티프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연수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는 옛 애인 희진이 도쿄로부터 보내온 갑작스러운 장문의 이메일에 관한 얘기로 시작된다.

> 그럼에도 그녀가 멀리 있다거나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즈음 이메일을 쓴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언급했을 그 사건, 그러니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때문이리라. 당연히 그녀 역시 이메일에 그 사건에 대해 적어놓았다. 희진이 그 이메일을 쓴 건 배가 가라앉은 다음날 밤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호텔 뷔페를 먹고 올라와 무심코 TV를 켰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고 썼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나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혹시 그 배에 그녀의 친지가 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내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혹시나 싶어 오른손 엄지로 화면을 밀어올리며 얼른 훑어봤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침에 뷔페를 먹고 올라온 뒤 TV를 통해 몇 번이고 배가 가라앉는 영상을 봤다는 것. 그것뿐이라는 걸 알아내는 데도 한참이 걸릴 만큼 편지는 길었다.[5]

희진의 메일은 2004년 그들(희진과 '나')이 사쿠라 시의 어느 카페를 방문했을 때 남긴 노래와 글로 인해 생의 의지를 되찾고 재기한 한 일본인 사업가를 만난 사연을 담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소설은 네이션을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데 무리가 없고, 그 주제 및 우연을 매개로 한 구성의 방식은 김연수 소설이 전개해온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마치 '노란 리본'처럼 세월호 사건을 소설

5) 김연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 45~46면.

의 서두와 결말에 새겨두고 있다.

(2) 상징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의 삽입

김숨의 ≪L의 운동화≫(민음사, 2016)는 작품 안팎에서 이한열의 운동화 복원 과정을 서사화했다는 사실이 여러 모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그럼에도 굳이 L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다.) 그 복원 과정은 좁게 보면 한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인 작업이지만, 넓게 보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면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 L의 운구 행렬이 서울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모인 추모 인파는 100만 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흐른 2002년 6월 한일월드컵 때 서울광장에는 붉은악마 응원단들이 모였다. 그리고 또 십수 년이 흐른 2014년 4월 그곳에는 세월호 참사 분향소가 차려졌다.[6]

그렇기에 복원은 다만 운동화라는 사물에 그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결국 역사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복원'이라는 결론은 그와 같은 복잡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일 텐데, 그것은 작중인물의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이 소설을 쓰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소설 속 대상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깊이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7]라는 작가의 말에서도 그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L이라는 이니셜은 역사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다가서려는 태도를

6) 김숨, ≪L의 운동화≫, 민음사, 2016, 103면.
7) 김숨, 「작가의 말」, ≪L의 운동화≫, 275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 방식의 역사 복원과는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 속에 도입되는 과정에는 방법적인 고민이 뒤따르며, 그 같은 소설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일수록 그 고민은 심각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다. 최은영의 〈미카엘라〉(『실천문학』, 2014년 겨울호)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그녀, 미카엘라)과 교황 미사에 참석하러 서울에 올라온 엄마(여자)에 각각 초점을 맞춰 시점을 교차시키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자(엄마)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이 세월호 사건으로 손녀를 잃은 친구를 찾아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 텔레비전에서 여자를 본 그녀(딸)가 광화문으로 여자를 찾아 나서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어긋난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와 똑 같은 복장과 뒷모습을 한 여자와 대면하지만 얼굴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게다가 노인의 친구가 사건으로 잃은 손녀의 이름이 미카엘라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녀의 상봉기는 돌연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듯 보였던 사건이 어느새 그들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 여자는 노인을 부축하고 미카엘라의 엄마와 할머니를 찾아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리고 그이들의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힘들지 않기를 바랐다. 다친 마음을 마음껏 짓밟고도 태연한 이 세상에서 그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다.
>
> “엄마!”
>
> 미카엘라가 여자를 불렀다. 여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마음으로 딸애를 불러봤다.
>
> 미카엘라.[8)]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동시에 체현하고 있는 '미카엘라'라는 기표를 활용하여 작가는 재현의 구도를 해체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 사이의 경계 또한 의문스럽게 만드는 전략을 기법적으로 취하고 있다.

문은강의 〈밸러스트〉(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성으로 된 소설인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소설 속에 담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이 엿보인다. 소설의 전반부는 시장에서 더덕 행상을 하며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낸 한 여성(당신)의 이야기처럼 흘러간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서술자가 선박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더 이후에는 그 화자가 이미 사고로 인해 죽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소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던 시점의 원인이 밝혀진다. 그 과정은 정치적 사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한 인물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과정과 겹쳐져 있다. 여기에서도 죽은 아들('나')과 당신(어머니)은 세월호 사건을 매개로 해서야 가까이 다가가지만 이미 그 사이에 놓인 간격을 끝내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2) 사건의 간접적 암시

(1) 알레고리를 통한 실재와의 접촉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소설 속에 직접 도입하고 있는 경우 사건을 재현하는 전통적 방식과 이미 상징적 방식의 재현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흐름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소설뿐만 아니라 인접한 상황을 대상으로 삼아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그 사건

8) 최은영, 〈미카엘라〉, 『실천문학』, 2014년 겨울호, 335면.

을 암시하는 소설들 또한 폭 넓게 확인할 수 있다.[9]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모종의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을 그린 소설들을 들 수 있다. 김애란의 〈입동〉(『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김영하의 〈아이를 찾습니다〉(『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 박민규의 〈대면〉(『문학동네』, 2014년 겨울호) 등을 이런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 이미 있었고,[10] 이 범주에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로 인해 겪는 어머니의 고통을 다룬 정용준의 〈6년〉(『현대문학』, 2014년 10월호)과 학교 수련회에 보낸 아이(영이)가 화재 사건으로 죽고 난 후 '헝겊 아이들'을 만드는 부모(장씨와 분이)의 이야기를 담은 최인석의 〈조침(弔針)〉(『자음과모음』, 2015년 봄호)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입동〉이나 〈6년〉이 리얼리즘의 방식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상황과 심정을 재현하고 있다면, 〈아이를 찾습니다〉는 추리소설의 방식을, 〈대면〉과 〈조침〉은 각각 판타지와 설화의 상상력을 결합시켜 재현과는 다른 질감을 덧붙이고 있다.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21세기문학』, 2015년 가을호)와 황정은의 〈웃는 남자〉(『문학과사회』, 2014년 가을호)는 사고로 인해 각각 남편과 연인을 잃은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춰 힘겨운

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알레고리 개념은 폴 드 만의 논의의 맥락에 기초한 것이다. 폴 드 만은 이미지와 실재가 일치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성립된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의 상징적 사유를 비판하며 시간성에 기초한 문학 언어는 근본적으로 알레고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바 있다. 상징의 세계에서 실재와 그 재현은 같은 범주의 부분과 전체이지만, 시간이 구성적 범주인 알레고리의 세계에서는 알레고리적 기호는 그보다 선행하는 다른 기호를 언급하게 되며 "알레고리적 기호에 의해 구성된 의미는 이전 기호의 반복 속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때 "알레고리적 기호는 이전의 기호와 결코 일치할 수 없다."(Paul de Man, *Blindness and Insigh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 207) 현전의 근원적 불가능성 속에서 이 비동일성의 반복을 통해 알레고리적 기호는 그 기원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 글의 전제를 이룬다.

10) 신샛별, 「부모의 자리에 서서－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 『창작과비평』, 2015년 여름호.

애도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나'가 겪는 고통은 교사인 남편이 학급의 학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로 인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여기에서 윤리의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 내부에서 발생한다. 〈웃는 남자〉에서는 그 윤리적 자의식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 그는 그냥 하던 대로 했겠지. 말하자면 패턴 같은 것이겠지. 결정적일 때 한 발짝 비켜서는 인간은 그다음 순간에도 비켜서고…… 가방을 움켜쥐는 인간은 가방을 움켜쥔다. 그것 같은 게 아니었을까. 결정적으로 그,라는 인간이 되는 것. 땋던 방식대로 땋기. 늘 하던 가락대로 땋는 것.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피륙이 있고 그것의 무늬는 대개 이런 꼴로 짜이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직조해내는 패턴의 연속, 연속, 연속.[11]

교통사고로 인해 연인(디디)이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 '나'가 했던 관성적인 행동은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을 반복해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는 '나'와 다른 존재라고 여겼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12] 이처럼 소설을 통해 역사적 사건은 현실로부터 주체 내부로 전이되어 소설 안팎의 존재들로 하여금 자기 내부의 심층을 응시하도록 만들면서 근본적인 성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들은 왜 세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사건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가?

---

11) 황정은, 〈웃는 남자〉, 『문학과사회』, 2014년 가을호, 124면.

12) 이 소설에 나타난 자기 내부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광호의 「남은 자의 침묵-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문학과사회』, 2014년 겨울호)에서 분석된 바 있다.

우선 실제 사건을 직접 소설 속에 담을 경우 사건 자체의 비극적 무게에 의해 소설적 상상력이 제약되는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김연수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나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등에서 서사적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에 대해 "소설 속에서 상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작가의 간절한 마음은 소설의 결함을 뛰어넘어서, 아니 오히려 그 균열로 인해서 서사 내부에 봉합되길 거부하고 텍스트 바깥으로 흘러넘치고 있다"[13]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 시각은 그 원인을 우호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결국 '소설의 결함'을 낳은 원인이 된 것이다. 달리 말해, 그와 같은 서사적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사건이 요구하는 방법적 고민이 서사화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소설 속에 도입할 경우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는 서사화의 방법적 고민뿐만 아니라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무엇보다 그 사건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주체의 반성적 성찰의 과정 또한 동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서사화하는 행위는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3주 전 교수는 세월호에 관한 글을 써오라고 했다. 침몰하는 세월호 속 인물을 1인칭 시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써오라고 말했다. 친절하게 에어포켓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주었다. 나는 당연히 쓰지 않았고, 수업에 불참했다. (…) 교수

13) 이소연, 「애도 불능 시대의 리얼리즘: 4·16 이후 쓰인 결함 있는 소설들」, 『자음과모음』, 2016년 봄호, 214면.

는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다. 이번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의 1인칭 시점으로, 이제는 에어포켓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정해주었다. 맛이 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만적인 과제를 해 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수업시간, 나는 마이클 커닝햄의 ≪세월≫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시점만 바꾸어 제출했다.[14]

위의 인용은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분 당선작 〈Auto〉의 한 부분이다.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교수의 글쓰기 과제는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월호 소설'을 검색하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 사건 소재의 네티즌 소설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게시판에서는 그런 참사를 소설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작가들 역시, 아니 공적인 영역에서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작가라면 그와 같은 자의식으로부터 더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

좀처럼 분향소에 갈 수 없었다.
거길 다녀와서, 그래도 거길 다녀왔다는 안도감을 느낄까 두려웠다. 6월이 되어서야 다녀왔다.[15]

여기에서는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14) 김봉곤, 〈Auto〉,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 당선작. 『동아일보』 2016년 1월 1일자에 줄거리가 실렸고 전문은 동아일보 홈페이지(http://www.donga.com/docs/sinchoon/2016/01_1.html)에서 볼 수 있다.

15) 황정은, 「가까스로, 인간」, 『문학동네』, 2014년 가을호, 441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황정은은 이 부분을 『눈먼 자들의 국가』(문학동네, 2014)에 수록하면서 삭제했다.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심층의 윤리의식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알레고리적 방식은 그와 같은 갈등의 산물로서 성립된 것이 아닐까.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에서 보다 깊은 울림이 느껴"[16]진다고 한 언급을 두고 생각하면, 그 방식은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의 인식과 그것의 서사화 과정에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다소간 비켜설 수 있는 자리를 작가에게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에서 알레고리적 방식의 선택은 사건의 외부를 뚫고 그것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가라타니 고진은 상징이 아닌 알레고리적 방식을 통해 역사적 단독성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오에 겐자부로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사례로 입증하고자 한 바 있다.[17]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을 '상징'한다는 신념이 오히려 거기에서 걸러진 단독성들을 억압한다는 것이 가라타니의 주장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근 한국 소설에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 속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알레고리적 방식에는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시대적인 보편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신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태도는 더 근본적으로는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 핼 포스터(Hal Foster)는 라캉의 논의에 근거하여 외상적인 것을 실재와의 어긋난 만남(tuché)으로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다만 반복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캉은 이때 "반복은 재생이 아니라는 사실"[18]을 강조한다. 핼 포스터는 "반복은 외상적인 것이라고 이해되

16)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 12권, 2016, 45면.
17)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 참조.
18)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이수련 역,

는 실재를 가리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이런 필요 자체는 또한 실재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 지점에서 실재는 반복의 스크린을 파멸시킨다"[19]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런 비동일성의 반복은 상징보다는 알레고리에 더 가까운 것일 수밖에 없다.[20]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상징에서는 재현의 진실성 여부가 관건이지만, 알레고리의 경우 과거 사건은 현재의 상황에서 저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공감대를 위한 근거로 족하다. 가령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에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에필로그의 의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에필로그가 없다면 그것은 광주라는 사건과 그로 인해 사람들이 떠안게 된 고통의 연대기, 말하자면 재현의 형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에필로그가 덧붙여지면서 이야기는 상징의 차원을 벗어나 현재의 상황에서 해석 공동체가 나누는 공감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흐름으로 귀착된다. 여기에서 역사의 복원은 사실의 복원이 아니라 사건의 실재와 마주하는 '접촉'의 복원과 그것의 공유가 된다.[21]

새물결, 2008, 83면.

19) 헬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조주연·최연희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212면.

20) 장 뤽 낭시의 '접촉/물러남(touch/withdrawal)' 또한 그와 같은 실재와의 만남과 그 형상화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낭시의 논의에 대해서는 장 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마라』, 이만형·정과리 역, 문학과지성사, 2015 및 Laura McMahon, *Cinema and Contact: The Withdrawal of Touch in Nancy, Bresson, Duras and Denis*, LEGENDA, 2012 참조.

21)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 부분이 갖는 서사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오카 마리와 장 뤽 낭시의 논의에 근거하여 앞서 분석한 바 있다. 손정수, 「역사에 접근하는 최근 장편 형식과 그 정치적 무의식」, 396~401면 참조. 실재와의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서사에 도입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앞서 '광주'에 적용한 이론적 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반복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 점을 보완하여 진전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2) 알레고리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적 지평의 확장

알레고리적 방식은 실재와의 접촉이라는 사건의 깊이의 차원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지평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형식인 듯하다. 최근에 들어 사회적 경향의 작품과는 꽤 거리가 있는 소설을 써온 작가들의 소설에서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건을 소설 속에 도입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비교해 다소 성격이 달라 보이는 점이 있다.

윤성희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전(自轉)적인 성격의 이야기 세계를 지속시켜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 세계에서도 최근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가령 〈스위치〉(『현대문학』, 2016년 3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등장한다.

> 여섯 살에서 일곱 살 때까지 나는 할머니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그해, 아버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가죽공장이 경영난에 시달렸고, 민선이 누나가 무너진 흙에 깔리는 바람에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었다. 학교 뒷동산에 흙을 파 화단을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땅파기를 시키다 일어난 사고였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산 아랫자락만 파다보니 자연스럽게 굴이 되었고 그러다 갑자기 흙이 무너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했고 아버지는 부도가 나기 직전인 공장을 수습하랴 교육청에 항의를 하러 다니랴 정신이 없었다.[22]

이 소설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은 삼촌을 면회하기 위해 화자가 교도소를 방문하는 일이다. 실제 면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이 오히려 텍스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

22) 윤성희, 〈스위치〉, 『현대문학』, 2016년 3월호, 143면.

자가 어린 시절 겪은 민선이 누나의 죽음인데(그것은 세월호 사건의 재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이 발표된 시점에서 한국의 독자들은 이 장면으로부터 그 사건을 떠올리기 쉽다), 그 사건은 가족의 삶에 오래토록 이어질 균열을 만들었고 화자 역시 그 사건의 여파를 겪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요컨대 여기에서 사건은 동시대의 상황으로부터 과거의 기억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의 해소가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의식적인 태도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은 작가의 언급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
> 어리둥절의 세계는 잠시 유보. 아니 어쩌면 영원히 굿바이.
> 더 이상 어리둥절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작년 어느 봄날 이후.
> 톰 소여처럼 감정의 사치를 누리는 것도 힘들어져버렸다. 나는 슬픔을 느끼는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게 나의 진심인가. 감정의 사치를 위해 만든 나의 가짜 슬픔인가. 나는 모르겠다.[23]

'작년 어느 봄날'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소설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작가의 긴장된 표정이 위의 고백에서 감지된다. 그리고 위의 인용을 두고 생각해보건대, '슬픔'은 재현의 대상이기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니 그 극복이나 해소로 성급하게 이행할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잠정적인 유보와 전환의 의식이 소설 속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스위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

23) 윤성희, 「어리둥절의 세계는 이제 안녕!」, 『한국문학』, 2015년 겨울호, 21면.

김희선 또한 그의 소설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나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가였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골든 에이지〉(『21세기문학』, 2016년 겨울호)에는 이전과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소설의 인상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대체적인 흐름은 기존의 김희선 소설의 방식에 따라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재로부터 이삼십 년 정도 후의 근미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싸고 탐문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 과정에 난부 요이치로의 '끈이론'이나 홀로그램 우주론 등의 담론과 허구를 조합하는 기존의 소설적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한 노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영원히 반복되는 홀로그램 우주 속에 머물기를 선택했다는 전말이 밝혀지는데, 문제적인 것은 그 인물이 선택한 시간이다.

> '2014년 4월 15일 오후로 가고 싶네. 거기서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게나. 부탁이야.'[24]

이 시간과 공간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질료로 하여 만든 가상의 세계이다. 그것은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할 뿐이며 역사 자체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 "저어…… 아까 말한 그 날짜, 적어주시겠어요? 배와 사람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망각해가는 것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
> 그는 볼펜을 꺼내더니 잠시 멈칫했다.
>
> 그러더니 결심한 듯 일곱 개의 숫자를 천천히 적어나가는

24) 김희선, 〈골든 에이지〉, 『21세기문학』, 2016년 겨울호, 85면.

것이었다.[25]

여기에서 문제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행위이다. 역사를 기억하되 전유하지 않는 이와 같은 태도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지 않고 다만 기억을 나누어갖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 그것만으로도 소설은 이전과 다른 의미의 겹을 드러내고 있다.

윤해서 또한 실험적인 문체를 바탕으로 사건보다는 의식을 중심으로 (반)서사를 구축하는 경향의 소설을 써온 작가이다. 그런데 그의 근작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면〉(『문예중앙』, 2016년 여름호)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알레고리로 해석해볼 수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소설의 문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인다. 소설은 1분 15초 먼저 세상에 나온 쌍둥이 오빠(고영인)를 회고하는 동생(고영수)의 시점으로 서술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빠가 "그 해 봄"[26] 어떤 사건을 겪고 살아남았으나 그 사건으로 잃은 아이들과 윤리 선생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자신 역시 세상을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쌍둥이임에도 서로 다른 성별과 성격으로 설정된 이 소설의 인물 구도는 이 글의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사건은 둘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나누지만, 그럼에도 둘의 사이는 그다지 멀지 않다.

> (만약 우리가 단지 조금 멀리 떨어진 사막의 길 위에 서 있는 거라면
> 만약 우리가 다만 조금 긴 시차 속에 살고 있는 거라면)[27]

25) 같은 글, 88면.
26) 윤해서,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면〉, 『문예중앙』, 2016년 여름호, 113면.
27) 같은 글, 136면.

내가 너였더라면.[28]

위에서와 같은 '함께-있기(being-with)'의 바람은 다만 텍스트 내의 인물들 사이에 한정되지 않는 공명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소설의 알레고리 형식은 텍스트 바깥의 존재들까지 그 해석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작가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언급해놓고 있다.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오래 망설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닐까.
쓰겠다 결심하고도 다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글이 소설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쓰고 난 후에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해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개 숙입니다.
도처에 계신 당신들께.[29]

망설임 속에서도 글쓰기를 매개로 연결된 '당신'과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게 느껴진다. 게다가 그들은 '도처에' 있지 않은가. '소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현실 속 사건과 인물에 대해 글 쓴 이가 갖는, 허구적 구조물과는 다른 차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탁환의 경우에도 그 출발점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윤성희, 김희선, 윤해서 등의 상황으로부터 크게 멀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주로 대중적인 역사소설을 써왔고 그런 점에서 ≪목격자들≫(민음사, 2015) 역시 가상역사소설이라는 기존의 김탁환 소설의 전형

28) 같은 글, 137면.
29) 윤해서, 「이 달의 소설 작가의 말」, 『웹진 문지』, 2016년 7월.

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조 시기를 배경으로 '조운선 침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추리 소설 형식의 이 이야기가 세월호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정도에 그쳤다면 이 작가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설적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다만 동참을 표현하고 '함께-있음'을 텍스트를 통해 실현하는 정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다.

> 조선 후기 조운선 침몰 사건을 다룬 장편 ≪목격자들≫을 낸 후 더 허탈했다. 소설 속에서는 조선 명탐정이 조운선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색출하며 정조가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까지 보이건만, 소설 밖 세월호의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했다. 현재를 반성하는 거울로 과거가 놓이긴 하지만, 은유나 상징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유가족이나 혹은 잠수사를 만날 엄두를 내진 못했다.
>
> 그때 416기억저장소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2015년 9월 22일, '불문학자 황현산과 함께하는 보들레르 낭독의 밤'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목격자들≫을 쓴 소설가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출연하는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자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저렇게 재지도 않고 하겠다고 했다. 왜 그렇게 곧바로 승낙했을까. 아쉽고 답답하고 이 참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것 같다.[30]

팟캐스트 출연을 계기로 작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소설적 방향에도 큰 전환을 가져온다. 선체 수색과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의 탄원서 형식으로 된 ≪거짓말이다≫(북스피어, 2016)가 고 김관홍 잠수사를 대상으로 한 소설적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면, 〈찾고 있어요〉(『황해문화』, 2016년 여름호),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여행은 멋진

30) 김탁환, 「포옹하는 인간」, ≪거짓말이다≫, 북스피어, 2016, 367면.

것일까〉(『문학사상』, 2016년 10월호), 〈눈동자〉(『AXT』, 2017년 3/4월호) 등의 단편들[31] 역시 세월호의 사연을 바탕으로 거기에 진혼과 존경의 허구를 입힌 초상화 그리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문학적인 전화의 과정을 거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탁환의 경우에서처럼 반대로 오히려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과 더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글에서 설정한 역사적 사건 형상화의 유형이라는 것은 다만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유형들은 한 작품 속에, 그리고 작가들에게 혼재되어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3. 나가며

이상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시킨 소설적 상상력의 범위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각자의 소설적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건은 폭넓게 다양한 형식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방식을 사건을 직접 서사 속에 도입한 경우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32] 전자의 경우에는 사건을 재현하는 상징의 방식이 우세한 가운데 그에 대한 회의를 내포하는 문학적 장치를 제시하는 경향을 아울러 볼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알레고리적 방식을 통해 사건 이면의 윤리적 문제에 접

31) 이 단편들은 미발표작들과 함께 최근 출간된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돌베개, 2017)에 수록되었다.

32) 이런 양상은 다만 소설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가령 연극 분야에서 이루어진 세월호 극화의 유사한 양상을 양근애의 「'이후'의 연극, 애도에서 정치로」(『대중서사연구』 22(3), 2016.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하는 경향과 함께 알레고리를 매개로 이데올로기적 지평이 확장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면, 사건 형상화 범위의 확장과 형상화 방식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 근거가 되는 사례들을 제시했을 뿐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규명은 수행하지 못했다.[33]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글 역시 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상되고 집필되었기 때문에 사건 및 작품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해석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론적 방법론의 구체화와 보다 정치한 적용은 물론, 세월호 사건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는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을 서사화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들을 포함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3) 발터 벤야민은 바로크 시대의 비애극을 분석하면서 "표현의 '상징적'인 자유, 형태의 고전적인 조화, 인간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하며 "이것이 우의적 고찰의 핵심, 역사를 세계의 수난사로 보는 바로크적 세계 해석의 핵심이다"(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역, 새물결, 2008, 217면)라고 규정한다. 비극적 세계관의 양식으로서 알레고리의 의미가 세월호 사건을 모티프로 한 소설들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점만 언급해두고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김봉곤, <Auto>,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부문 당선작.
(http://www.donga.com/docs/sinchoon/2016/01_1.html)

김 숨, ≪L의 운동화≫, 민음사, 2016, 1~280면.

김애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21세기문학』, 2015. 가을, 77~110면.

김애란, <입동>, 『창작과비평』, 2014. 겨울, 258~280면.

김연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문학동네』, 2014. 겨울, 45~61면.

김영하, <아이를 찾습니다>, 『문학동네』, 2014. 겨울, 105~135면.

김탁환, ≪목격자들≫ 1, 민음사, 2015, 1~384면.

김탁환, ≪목격자들≫ 2, 민음사, 2015, 1~428면.

김탁환, ≪거짓말이다≫, 북스피어, 2016, 1~392면.

김탁환, <찾고 있어요>, 『황해문화』, 2016. 여름, 158~197면.

김탁환,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여행은 멋진 것일까>, 『문학사상』, 2016. 10, 137~160면.

김탁환, <눈동자>, 『AXT』, 2017. 3/4, 132~146면.

김희선, <골든 에이지>, 『21세기문학』, 2016. 겨울, 57~88면.

문은강, <밸러스트>, 『서울신문』, 2017. 1. 1.

박민규, <대면>, 『문학동네』, 2014. 겨울, 194~215면.

박민규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1~232면.

방현석, <세월>, 『문학동네』, 2015. 가을, 265~307면.

윤대녕, <닥터 K의 경우>, 『문학과사회』, 2015. 여름, 116~144면.

윤성희, <스위치>, 『현대문학』, 2016. 3, 132~151면.

윤성희, 「어리둥절의 세계는 이제 안녕!」, 『한국문학』, 2015. 겨울, 11~21면.

윤해서,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면>, 『문예중앙』, 2016. 여름, 109~137면.

윤해서, 「이 달의 소설 작가의 말」, 『웹진 문지』, 2016. 7.

임철우, <연대기, 괴물>, 『실천문학』, 2015. 봄, 246~287면.

정용준, <6년>, 『현대문학』, 2014. 10, 112~132면.

정　찬, <새들의 길>, 『문학사상』, 2014. 8, 88~113면.

최은영, <미카엘라>, 『실천문학』, 2014. 겨울, 312~335쪽.

최인석, <조침>, 『자음과모음』, 2015. 봄, 59~77면.

황정은, <웃는 남자>, 『문학과사회』, 2014. 가을, 105~126면.

황정은, 「가까스로, 인간」, 『문학동네』, 2014년 가을호, 440~449면.

2. 논저

1) 논문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 12권, 2016, 31~59면.

손정수, 「'용산'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들의 스펙트럼」, 『자음과모음』, 2010. 가을, 870~889면.

손정수, 「역사에 접근하는 최근 장편의 형식과 그 정치적 무의식, 『세계의 문학』, 2015. 여름, 384~404면.

신샛별, 「부모의 자리에 서서-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 『창작과비평』, 2015. 여름, 32~51면.

양근애, 「'이후'의 연극, 애도에서 정치로」, 『대중서사연구』 22(3), 2016. 8, 7~44면.

양경언, 「눈먼 자들의 귀 열기-세월호 이후 작가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기록」, 『창작과비평』, 2015. 봄, 274~290면.

이경수, 「현실 접속의 실재와 증언문학의 가능성」, 『서정시학』, 2016. 봄, 12~29면.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 2014. 겨울, 318~341면.

이소연, 「애도 불능 시대의 리얼리즘: 4·16 이후 쓰인 결함 있는 소설들」, 『자음과모음』, 2016. 봄, 202~216면.

2) 저서

가라타니 고진, 『역사와 반복』,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8, 1~269면.

발터 벤야민, 『독일 비애극의 원천』, 조만영 역, 새물결, 2008, 1~416면.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맹정현 · 이수련 역, 새물결, 2008, 1～104면.

장 뤽 낭시, 『나를 만지지 마라』, 이만형 · 정과리 역, 문학과지성사, 2015, 1～125면.

핼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 조주연 ·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 1～362면.

Man, Paul de, *Blindness and Insigh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pp. 1～308.

McMahon, Laura, *Cinema and Contact: The Withdrawal of Touch in Nancy, Bresson, Duras and Denis*, LEGENDA, 2012, pp. 1～158.

<Abstract>

A Study on Ways of Introducing Ongoing Factual Event to the Text in Recent Korean Fictions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motif—

Son, Jeong-Soo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recent Korean narratives that introduce Sewol ferry disaster and considering narrative ways to fictionalize ongoing factual event. There are two way of inviting the event into the text. One of them is direct representation where the actual event itself appears in the story and other is allegorical presentation which deals with the event indirectly. While it can be found that previous ideological stand of the author is maintained in symbolic representation, in allegorical presentation the narrative way exerts an influence on the writer's attitude to the world and the fiction. Particularly in this case there can be found more texts concerned with the event and it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way of fictionalizing it.

Key words: history, symbol, allegory, the Real, the Sewol ferry disaster

투 고 일 : 2017년 4월 20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